

‘內子’銘으로 본 조선 전기 분청사기의 同音誤字 명문 사례와 의의

박정민(朴正敏)

I. 머리말

II. 소장품과 출토품 ‘內子’명 분청사기

III. 동음오자 분청사기 명문의 제작 의미

IV. 맺음말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漢陽都城 출토 元代 靑畫白瓷의 특징과 의의」, 『강좌미술사』51(2018); 「고려 청자 연구에 있어서 『宣和奉使高麗圖經』의 가치와 활용양상」, 『미술사학연구』 304(2019) 등

분청사기의 명문은 그릇에 대한 정보이자 官物의 貢納과 出納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명문은 당시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인화문 ‘綾城內子’명 발〉(본관13808)은 명문이 뚜렷한 그릇이지만 명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분청사기와 다르다. 분청사기에 표시한 명문은 대부분 그릇이 속한 官司名이거나 그릇을 만든 地名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표시된 ‘內子’명은 해당하는 관청이 없다. 그릇의 새긴 명문의 구성으로 볼 때 內子는 內資의 誤字인 것이다. ‘內子’명은 내자시의 그릇이라는 뜻이다. ‘內子’명은 內資의 틀린 글자이지만音が 같아 오자임에도 여전히 명문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글자가 다르지만 음이 같은 同音誤字 명문이 최근 서울시내 발굴 조사에서 조금씩 출토되고 있다. 內資를 ‘內子’로 표시하고 仁壽를 ‘仁守’로 새긴 동음오자 명문의 분청사기는 작업자가 의도한 것이든 無知의 결과이든지 간에 실제 官物로 통용되었으므로 소비지인 서울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동음오자 명문은 음은 같지만 획수가 적고 간단한 글자를 사용했고 글자의 엉성한 필획이 특징이다. ‘內子’와 ‘仁守’명을 표시한 그릇들 역시 일반 관사명 분청사기처럼 서울시내 유적에서 출토된다. 동음오자 명문은 조선 전기 공납 분청사기들에 명문을 필각하는 과정에 생긴 오류와 또 그러한 오류가 실제 유통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주제어: 內子, 명문, 분청사기, 內資寺, 同音誤字, 官物

‘內子’銘으로 본 조선 전기 분청사기의 同音誤字 명문 사례와 의의

박정민(朴正敏)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I. 머리말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誤脫字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뜻이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한 글과 한자를 병기할 때 더욱 신경 쓰인다. 옳은 글자도 뜻이 다른 한자 단어가 많기 때문이다. 誤字로 빚어진 작은 실수는 큰 차이와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시대에 뜻글자인 한자의 바른 사용은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 문자 생활의 중심은 한자였고公私 가릴 것 없이 글자의 오자와 誤讀은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었다.

도자사 연구에도 한자 판독은 중요하다. 특히 조선 사람들은 도자기에 필요한 내용을 도장으로 파서 찍고[印刻], 칼로 새기고[筆刻], 정으로 쪼고[點刻], 먹으로 써서[墨書] 표시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다수의 분청사기에도 명문이 남아있으며 대부분 한자다.¹ 명문 내용은 소속 관청, 제작지 등으로 조선 전기 官物을 관리하기 위해 그릇을 제작할 때에 표기했다.²

분청사기의 명문은 그릇에 대한 정보이자 관물의 貢納과 出納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명문은 당시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덕분에 오늘 우리도 명문으로 그릇의 제작 시점과 제작 지역을 파악하고, 연구의 실마리로 삼고 있다. 실제 많은 분청사기 관련 선행 연

1 이 논문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청사기 인화문 ‘綾城內子’명 발〉을 소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명칭을 존중하고 용어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인화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조선 15세기 상감청자를 분청사기로 지칭한다.

2 분청사기의 명문은 대부분 제작 시점에 표시한다. 반면 조선 전기 백자의 명문 중에는 그릇 사용 중에 표시되는 경우도 많다. 분청사기 관리는 지방의 공납 자체에 대한 통제가 우선이고, 백자 관리는 사용 중 출납 통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는 일찍부터 그릇의 명문에 주목했다.³

연구에 사용한 분청사기 명문은 일부 잔존 상태가 불량한 경우를 제하고는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다만 그릇에 한자를 작게 새겨 놓다 보니 획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는 일부 획이 생략 또는 누락되기도 하고, 한자 쓰기에 능숙하지 못한 자가 그릇에 명문을 표시할 때는 字劃 구성이 엉성하거나 劃順이 틀려 한자의 판독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명문이 희미해지거나 지워져 알아볼 수 없을 때도 더러 있다. 물론 한자를 판독했다고 그 명문의 의미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한 글자[一字]만 있는 명문은 간혹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청사기의 다양한 명문을 접하다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인화문 ‘綾城內子’명 발〉(본관13808, 이하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처럼 특이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의 명문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동체 외면 양쪽에 각각 ‘綾城’과 ‘內子’를 새겼다. 선행 연구들이 파악한 분청사기의 명문 조합을 감안하면, ‘綾城’과 ‘內子’는 각각 그릇을 제작한 地名과 그릇의 공납처인 官司名에 해당한다.⁴ 그릇의 명문 구성으로 볼 때 內子는 內資의 오자다. 이 분청사기는 內資寺에 속한 그릇이다.

특정 관청의 그릇임을 나타내는 명문이 그 관청의 이름과 다르다는 것은 그릇에 명문을 새기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릇에 명문을 새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의 각 관청에 공납하는 분청사기를 제대로 구분하고 출납하기 위함이다. ‘內子’는 비교적 단순한 한자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 톱대로 ‘내자’라고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內子’는 음과 글자 자체가 內膳 등 다른 관청과 확연히 달라 혼동의 여지가 적었으므로 오자임에도 여전히 명문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의 ‘內子’명처럼 글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아 기능을 유지한 명문을 同音誤字 명문으로 지칭하겠다. 동음오자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綾城內子’명 분청사기〉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내 발굴 조사에서도 ‘內子’명을 새긴 그릇들이 출토되었고 仁壽府의 仁壽를 ‘仁守’로 새긴 파편도 발굴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남아있는 동음오자 명문을 소개하고 소략하게나마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3 강경숙, 『粉靑沙器義興銘器三例』, 『考古美術』6(3·4)(1965), pp.58-59; 정양모, 『粉靑沙器印花文大집試考』, 『歷史學報』27(1965), pp.143-164; 강경숙, 『粉靑沙器研究』(서울: 一志社, 1986); 김영원, 『朝鮮朝印花文粉靑沙器의樣式分類』, 『考古美術』148(1980), pp.1-24; 박경자, 『粉靑沙器銘文연구』, 『강좌미술사』25(2005), pp.261-292; 박경자, 『15세기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銘文의 지역별 특징』, 『역사와 담론』47(2007), pp.215-254; 박경자,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2013), pp.73-98; 김윤정, 『고려말·조선초 供上用銘文靑瓷의 이행 과정과 제작 배경』, 『石堂論叢』55(2013), pp.147-185; 박경자, 『慶尙道郡縣名粉靑沙器의 제작시기』, 『기장도자기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6), pp.79-95; 성현주,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아시아陶磁文化研究』창간호(2018), pp.125-187.

4 능성현은 1418년에 郡縣名을 회복했다. 지명이 표시된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를 1418년 이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도 지역의 공납 분청사기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상한 시기를 제시한 최근의 연구는 박경자, 위의 논문(2016), pp.93-95.

Ⅱ. 소장품과 출토품 ‘內子’명 분청사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綾城內子〉명 분청사기<는 그릇 전체에 백색의 문양이 가득하다(도 1). 외면 구연단에 草紋을 두고 측면은 雨點紋으로 채웠다. 외저면은 蓮瓣紋을 두르고 굽의 측면은 聯珠紋으로 장식했다. 외측면 우점문 사이에 문양을 시문하지 않은 세로 직사각형 공간을 두고 그 안에 ‘內子’명을 음각했다. 반대편에도 같은 방식으로 ‘綾城’명을 음각했다(도 2). 명문의 시문 위치 두 곳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도 3).

그릇의 내면은 명문 없이 문양만 빼곡하다. 내저면 중앙에 커다란 花紋을 두고 그 둘레에 우점문과 나비문, 연판문, 繩簾紋, 초문을 차례로 배치했다(도 4). 구연단 내외면의 초문은 線象嵌技法으로 꾸미고 그 외 모든 문양은 印畫象嵌技法으로 시문했다.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의 명문 ‘內子’는 內資寺의 그릇임을 의미하는 內資의 동음오자이다. ‘內子’명을 새긴 장인이 내자시라는 음만 알고 실제 한자를 잘 몰랐거나, 알더라도 ‘資’자를 정확하게 쓸 수 없어서 그나마 인지 가능성이 높은 같은 음의 쉬운 글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內子는



도 1. 〈분청사기 인화문 ‘綾城內子’명 발, 높이 8.9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13808)



도 2. 도 1의 명문 세부



도 3. 도 1의 외면 명문 배치



도 4. 도 1의 내면 문양

명칭으로 공납이나 출납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다른 관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릇에 명문으로 남았다.

그릇에 표시된 ‘內子’명은 글자의 짜임이 성글고 다소 치졸하다. 특히 ‘內’자에 비해 ‘子’자가 작고 획순도 부정확하다.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자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글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릇의 반대쪽 ‘綾城’을 살펴보면 명문을 새긴 사람이 한자에 미숙했다는 추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綾’자를 먼저 새기고 ‘城’자를 새겼다. 그 뒤에 ‘綾’자의 획수를 추가하기 위해 ‘城’자의 ‘成’자 부분 위에 ‘父’자를 추가한 모양새다.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에 명문을 표기한 장인은 한자의 필서가 능숙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內資를 동음오자 ‘內子’명으로 표시한 분청사기가 서울시내 유적에서도 출토됐다. 현재 ‘공평도시 유적전시관’으로 거듭난 서울 종로 공평 구역 1·2·4지구 유적의 19번지 조선 전기 건물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인화승림문 ‘內子’명 저부 편〉 역시 동체에 ‘內子’명이 있다(도 5). 이 편이 출토된 건물지는 鐘閣 사거리에서 북쪽 曹溪寺로 이어지는 南北大路 동쪽 길가에 자리한다.⁵ 〈분청사기 인화승림문 ‘內子’명 저부 편〉은 조선 전기 官窯에서 제작한 청자접시 편이나 죽절굽의 백자들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출토 양상에 별다른 특이점은 파악할 수 없다.

이 편은 내저면 중앙에 화문을 두고 그 둘레에 승림문을 돌렸다. 승림문 중간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內子’를 백상감했다. ‘內’자와 ‘子’자 모두 글자를 그리듯 새겼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와 명문 표기 위치는 다르지만 문양대 중간에 명문을 배치하는 방식이 같다. 다만 공평 구역 출토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달리 외저면과 굽 측면에 문양을 시문하지 않았다(도 6).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사택 부지에 해당하는 서울 정동 이화정동빌딩 신축 부지 유적에서도 〈분청사기 인화승림문 ‘內子’명 구연부 편〉이 출토되었다(도 7).⁶ 이 유적은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에 걸쳐 들어선 총 9기의 건물지로 이루어졌으나 교란이 심해서 출토품으로 유구의 개별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유적에서 확인한 ‘內子’명 분청사기는 구연부 殘片이다. 내외면 구연단의 초문은 선상 감기법으로 시문하고 그 아래로 외면의 승림문과 내면의 우점문을 인화상감기법으로 찍었다(도 8). 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처럼 외면에 세로 직사각형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표시했다. ‘內’자는 획의 균형이 다소 어긋났지만 분명하게 판독할 수 있다.

3점의 ‘內子’명 분청사기는 문양과 명문 구성이 유사하다(표 1). 특히 동체를 우점문 혹은 승림문으로 가득 채우고 그 중간에 세로 직사각형 공간을 마련한 다음 명문을 배치한 점이 같다.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와 공평 구역 출토품은 ‘內’자가 ‘子’자보다 큰 글자의 비례 역시 유사하다. 정동 출토품과 〈綾城內子〉명 분청사기〉는 모두 명문을 음각기법으로 새겼다.

서울시내에서 출토된 2점의 ‘內子’명 분청사기는 현재 잔편이다. 각 출토품에 표시되었던 원래 명문 양상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정동 출토품은 현재 구연부 한 쪽에 ‘內子’를 표시한 것으로 미

5 ‘內子’명 분청사기가 출토한 건물지는 내자시와 직접 상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遺構이므로 건물의 평면이나 구조 등 특징에 대한 세부 설명을 생략한다.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공평구역 제1·2·4지구 유적』Ⅲ(2017), pp.205-206.

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 서울 이화정동빌딩 신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2016), p.55, 86.



도 5. <분청사기 인화승려문 '내자'명 저부 편>, 서울 종로 공평구역 1·2·4지구 유적 출토, 현재높이 2.5cm, 한울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도 6. 도 5의 외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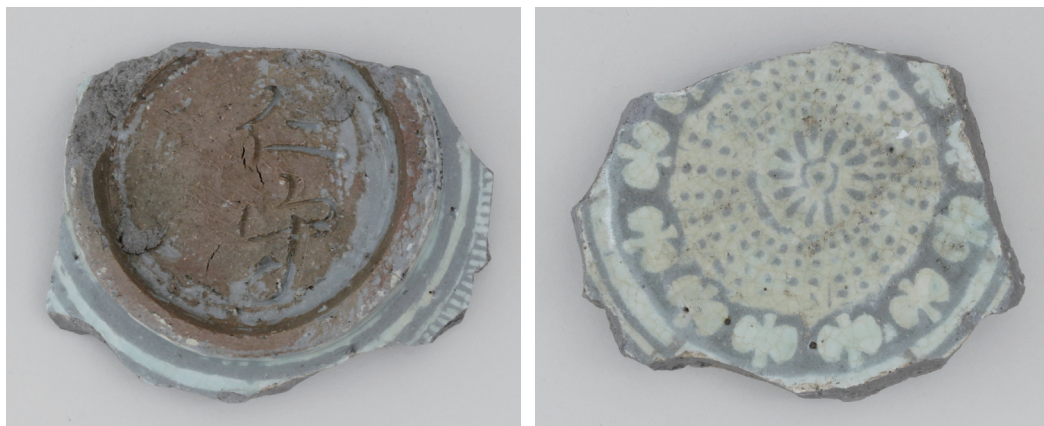


도 7. <분청사기 인화승려문 '내자'명 구연부 편>, 서울 이화정동빌딩 신축부지 유적 출토, 현재 길이 7.2cm, 겨레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

도 8. 도 7의 내면

표 1. '내자'명 분청사기 명문 세부 비교

명문	내자		
명문세부			
출토유적 및 소장처	서울 종로 공평 구역 1·2·4지구 유적	서울 정동 이화정동빌딩 신축부지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도 9.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仁守'명 저부 편>, 서울 세종로 구역 2지구 유적 출토, 도 10. 도 9의 내면
현재 높이 2.1cm, 한울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루어 볼 때 원래는 반대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처럼 지명까지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음오자는 내자시의 그릇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세종로 구역 2지구 유적 당주동 26번지 15세기 건물지에서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仁守'명 저부 편>이 출토됐다(도 9).⁷ 이 편은 내지면 중앙에 화문이 있고 그 둘레에 연주문과 나비문을 연이어 배치했다(도 10). 굽 안 쪽에 '仁守'를 음각했다. '仁守'명 역시 仁壽府의 그릇임을 의미하는 동음오자 명문이다. 이러한 동음오자 명문을 표시한 분청사기는 서울 시내 여러 유적들에서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III. 동음오자 분청사기 명문의 제작 의미

'內子'명은 內資의 동음오자로 內資寺의 그릇에 표시한 명문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동음오자 명문은 음은 같지만 원래 글자보다 획수가 적고 간단한 글자를 사용했으며, 글자의 영성한 필획이 특징이다.

분청사기의 명문은 관물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관사명이나 지명처럼 정해진 정보를 그릇에 표시한다. '內子'명만 특별히 기존의 범주 이외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조선 전기 內子は 주로 중국 황제가 조선 왕비를 지칭할 때 쓴 단어였다.⁸ 조선 내에서 왕비전의 물품을 '內子'명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며 더욱이 內膳寺가 왕비전의 財源을 담당했으니 '內子'명 분청사기를

7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 유적』(2013), p.598.

8 內子は 고대 중국에서 卿과 大夫의 嫡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조선은 明을 중주국으로 事大했기 때문에 명 황실이 조선을 제후국으로 간주하고 조선의 왕비를 내자라 칭했던 것이다. 『中宗實錄』 32卷, 13年(1518) 4月 21日 己丑. “中宮御康寧殿 受誥命 冠服 仍受內外命婦賀 誥命皇帝制曰 我祖宗 奉若天道 仁覆萬方 封爵之恩 無遠弗暨...”

왕비전과 연결하기 어렵다.

내자시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쌀·곡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을 비롯하여 內宴과 織造를 담당했다.⁹ 내자시는 1401년(태종 1) 기존의 內府寺가 바뀐 것으로¹⁰, 1403년(태종 3)에는 義成庫까지 대신했다.¹¹ 내자시는 주로 內膳寺, 禮賓寺와 함께 여러 왕실 행사에 필요한 비용과 재화를 감당했다.¹²

조선 초기 내자시가 주로 국왕과 관련한 행사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충당했다면, 내섬시는 주로 왕비와 관련된 업무와 행사 비용을 담당했다. 당시 先代 국왕의 제사 또한 내자시가 지내고 죽은 왕비의 제사는 내섬시가 주관했다.¹³ 그러므로 내자시의 그릇은 大殿과 국왕 관련 행사에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필요한 그릇의 숫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資’명 분청사기는 다른 관사명 분청사기에 비해 출토 수량이 매우 적다.¹⁴ 이는 국왕 관련 행사에 분청사기 말고도 銀器, 鍮器, 白瓷 등 다양한 재질의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¹⁵ ‘內資’명은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백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 11).¹⁶

현재까지 ‘內子’명은 분청사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내자시의 분청사기에 ‘內子’를 표기한 것이 작업자가 의도한 것이든, 無知의 결과이든지 간에 실제 내자시의 그릇으로 통용되었으므로 가마터가 아닌 소비지의 유적에서 출토한 것이다. 이는 내자시의 그릇에 동음오자 ‘內子’를 표기해도 내섬

9 『經國大典』卷1 吏典 內資寺, “掌內供米糲酒醬油蜜蔬果內宴織造等事…”

10 『太宗實錄』2卷, 1年(1401) 7月 13日 庚子, “…內府寺爲內資寺…”

11 『太宗實錄』5卷, 3年(1403) 6月 29日 乙亥, “…義成庫爲內資寺…”

12 『世宗實錄』22卷, 5年(1423) 12月 20日 丁卯, “…詣闕肅拜及賜見時 三次饋餉及禮曹兩次慰宴 回禮使看訪 漢江錢宴 內資 內膳 禮賓臨時分定從之.”

13 『世宗實錄』11卷, 3年(1421) 1月 19日 壬午, “禮曹啓 自今先王忌齋 內資寺設於藏義寺 先后忌齋 內膳寺設於津寬寺 永爲定式 從之.”

14 서울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은 종로대로와 육조거리 인근 한양도성의 중심지에 자리한다. 유적의 조선 전기 문화층에서 출토한 ‘內膳’명 자기는 모두 분청사기이며 34점에 달한다. 반면 ‘內資’명 자기는 3점으로 그 중 2점은 백자다.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I·II·III·IV(2013). 조선 전기 내섬시와 내자시는 여러 행사를 함께 수행했지만 유적에서 출토된 소속 그릇의 수량과 재질은 차이가 있다. 물론 유적 한 곳의 출토 상황만 가지고 京中各司의 그릇 공납이나 운용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정한 흐름은 가늠할 수 있다.

15 조선 조정은 1466년대 이후 公私 간 백자 사용을 금지하고 대전의 그릇으로 한정했다. 『世祖實錄』39卷, 12年(1466) 6月 7日 丙午,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16 전라북도 고창군 용산리 가마터와 서울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에서 각각 2점의 ‘內資’명 백자가 출토되었다. ‘內資’명 백자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窯址』(2004), p.74, 310;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III(2013), p.627;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IV(2013), p.82, 141;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2005), p.166, 460. 1466년(세조 12) 백자를 대전의 그릇으로 한정하기 전에는 여러 관청에 백자가 공납되었다. 일례로 서울 종로 청진 1지구 유적에서는 2점의 ‘內資’명 백자와 함께 ‘內膳’명 백자 1점, ‘禮賓’명 백자 5점, ‘禮’명 백자 1점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유물의 내외면에는 인화음각 기법으로 찍은 문양이 빼곡하게 남아있다.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지구 유적』II(2011), p.29, 61, 228, 244, 253, 280, 291, 343.

시나 예빈시 등 여타 관사의 그릇과 구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內資’명 자기는 대전과 충청도 공주, 전라도 고창 등 3곳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內膳’명 혹은 ‘禮賓’명 분청사기들과 함께 소량으로 출토되었다.¹⁷ ‘內資’명 자기는 애초에 생산량 자체가 적었다. 주로 내섬시와 예빈시에 공급하는 분청사기를 생산하는 중에 소량의 내자시 그릇을 함께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도 11. 〈백자 인화국화문 '內資'명 발 편〉, 고창 용산리 가마터 출토, 높이 9.2cm,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內子’명 분청사기는 ‘內資’명 자

와 같은 가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綾城內子’명 분청사기〉의 존재는 내자시의 그릇을 만든 가마터가 기존에 알려진 3곳 이외에綾城에도 있었음을 뜻한다.¹⁸ 능성은 옛 지명으로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일대이다. 조선시대 능성현은 1곳의 자기소를 보유하고 내자시에 공급할 그릇도 제작했다.¹⁹

흥미로운 점은 전세품과 출토품 ‘內子’명 분청사기가 모두 筆刻으로 명문을 표시했지만 그 외 가마터 및 소비지 출토 ‘內資’명은 분청사기와 백자 모두 주로 印刻으로 명문을 찍었다는 것이다(도 11). 명문은 내용을 도장에 새겨 誤字를 줄였다. 실제 다수의 분청사기 명문은 도장으로 찍지만 동음오자 명문은 필각했다. 필각을 해야 원래 관사명을 동음오자로 표시할 여지도 생긴다.

필각한 동음오자 ‘內子’명 분청사기의 등장은 원래 내섬시나 예빈시에 공급할 다량의 분청사기를 주로 제작하던 가마에서 소량의 내자시 그릇과 함께 만들게 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음오자 명문은 당시 가마의 작업자가 주로 표시하던 관사명이 아닌 생소한 관사명을 표기하는 과정에 생긴 단순한 실수인 것이다.

실제 그릇에 관사명을 표기하는 것은 사기장이 담당했을 것이다. 그릇에 명문을 표기하는 별도의 감독관을 지방 가마마다 배치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관사명을 제대로 모르는, 혹은 음만 알고 원래 글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기장이 동음오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內子’명에서

17 ‘內資’명 분청사기가 출토한 가마터에 대한 정리는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p.113.

18 현재까지 분청사기에 표시된 전라도의 地名은 광주의 한때 이름인 茂珍과 靈巖이 대표적이다. 선행연구는 15세기 전반 분청사기에 지명이 표시되는 원인을 해당 군현의 직접 공급방식 때문으로 파악한다. 박경자, 앞의 논문(2007), pp.215-254;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pp.70-72; 박정민, 『조선 15세기 전반 경기도 영평현의 백자 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44(2015), pp.267-291; 박경자, 앞의 논문(2016), pp.85-90.

19 『世宗實錄』151卷, 地理志 全羅道 長興都護府 綾城縣, “…磁器所一 在縣西釜方里 品中…”.

확인할 수 있는 글자 자체의 미숙함 역시 당시 분청사기에 직접 명문을 새긴 사람들의 한자 습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어떤 경우라도 ‘內子’, ‘仁守’ 같은 동음오자 명문을 표기한 관물이 당시 관리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요인이었으면 이런 그릇들은 생산지에서 폐기했거나 서울에 도착 후 사용을 통제했을 것이다. 사례가 소략하여 제작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內子’, ‘仁守’명을 표시한 그릇들 역시 일반 관사명 분청사기처럼 서울의 소비지에서 출토된다. 이는 ‘內子’, ‘仁守’명이 원래 관청의 이름과 다른 글자이지만 여전히 그 음이 같아 명문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분청사기의 명문은 그릇의 공납과 출납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실제로 완벽에 가까운 통제는 있어도 완벽한 통제는 없다. 事大의 禮에 지극했던 조선 세종 때도 明나라로 가는 表文桶의 용 모양이 견양과 달라 담당 관리가 문책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관리들이 공문서의 오자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오자를 찾아 상을 받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나랏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 실수가 없을 수 없다. 분청사기에 표시된 동음오자 명문 또한 조선시대 공납품 관리 체계 속의 작은 오류다. 하지만 통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오류였다.

최근 이루어지는 서울 시내 여러 발굴 조사에서 동음오자 명문의 도자기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다. 실무에서 사용한 동음오자 명문을 표시한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관물 제작과 소비의 實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앞으로 새롭게 출토되는 동음오자 명문 자료들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불안정한 명문의 실제 통용 빈도와 범위를 파악해 보겠다. 또한 동음오자 명문이 대부분 필각한 명문인 점에 착안하여 인각 명문과 필각 명문의 지방별 비중 차이를 공납 환경 안정성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접근들은 차후 명문 도자기의 연구 범위 확장과 인식 다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經國大典』

【단행본 · 보고서】

강경숙, 『粉靑沙器研究』, 서울: 一志社, 198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 서울 이화정동빌딩 신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2005.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청진1지구 유적』Ⅰ · Ⅱ, 2010.

_____,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Ⅰ · Ⅱ · Ⅲ · Ⅳ, 2013.

_____,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 유적』Ⅰ · Ⅱ, 2013.

_____, 『서울 공평구역 제1·2·4지구 유적』Ⅰ · Ⅱ · Ⅲ, 2017.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窯址』, 2004.

【논문】

강경숙, 「粉靑沙器」義興銘器 三例, 『考古美術』6(3·4), 1965.

김영원, 「朝鮮朝 印花文 粉靑沙器의 樣式分類」, 『考古美術』148, 1980.

김운정, 「고려말·조선초 供上用 銘文靑瓷의 이행 과정과 제작 배경」, 『石堂論叢』55, 2013.

박경자, 「粉靑沙器 銘文 연구」, 『강좌미술사』25, 2005.

_____, 「15세기 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역사와 담론』47, 2007.

_____,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조선 초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계통과 의의」, 『美術史學』27, 2013.

_____, 「慶尙道 郡縣名 粉靑沙器의 제작시기」, 『기장도자기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조선 15세기 전반 경기도 영평현의 백자 제작 배경과 특징」, 『강좌미술사』44, 2015.

성현주, 「경상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장간호, 2018.

정양모, 「粉靑沙器印花文대접試考」, 『歷史學報』27, 1965.

Cases and Significance of Inscriptions with Homophonic yet Misspelled Words on *Buncheong* Ware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Buncheong Bowl with Inscription of “Naeja”*

Park Jung-Min*

The inscription found on *buncheong* ware (粉青沙器, grayish-blue-powdered celadon) provides information on the bowl today, but in the past served as a device for controlling tributary payments (貢納) and the movement of government property (官物). The inscription had to be written or engraved clearly so that it could be recognizable to officials in charge of managing bowls. Such inscriptions offer important clues for contemporary research on *buncheong* ware.

Buncheong Bowl with Stamped Design and Inscription of “Naeja” (內子) (bon 13808)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ears a distinct inscription compared to other *buncheong* ware. Commonly, the inscription on *buncheong* indicated the name of the government office (官司名) to which the vessel belonged or the name of the place (地名) where the vessel was produced. However, the inscription “Naeja” on the *buncheong* bowl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no corresponding government office. “Naeja” is in fact a misspelling of Naeja (內資), meaning this bowl belonged to the *Naejasi* (內資寺, Royal Bureau of Procurement). Although “Naeja” (內子) was a misspelling of the intended Naeja (內資), it was still understood as a reference to the Naejasi since they were homophonic.

Recently, *buncheong* ware with misspelled yet homophonous inscriptions have begun to be excavated in downtown Seoul. Examples including “Naeja” (內子) instead of Naeja (內資) and “Insu” (仁守) instead of Insu (仁壽) have been unearthed from historical sites in Seoul that functioned as consumption sites, meaning they were in fact circulated as government property despite the misspellings (whether accidental or the outcome of ignorance).

Such misspelled yet homophonous inscrip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simple character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t History, Myongji University

and a few sloppy strokes. Like other *buncheong* ware bearing the inscriptions of government office names, the bowls with the inscriptions of “Naeja” (內子) and “Insu” (仁守) were discovered at historical sites in Seoul. These misspelled homophonous inscriptions reveal that error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engraving inscriptions on *buncheong* ware produced as a tributary payment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at *buncheong* ware with such errors were still distributed.

Keywords: 內子 Naeja, 銘文 Inscription, 粉青沙器 Buncheong Ware, 內資寺 Naejasi, 同音誤字 Misspelled yet Homophonous Word, 官物 Government Property